

데스크시각

김재열



재임 중 인사 후유증을 많이 겪었던 대통령으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꼽힌다. 첫 조각 때부터 낙마하는 각료들이 속출하면서 임기 내내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민정 부 각료 수명은 1년이 채 못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코드인사'로 5년 내내 비판을 받았다.

자기 사람 챙기기로 치면 이명박 정부도 역대 어느 정권에 뒤지지 않는다. 출범하자마자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시키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편중인사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기관장 대부분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영남향우회

최근 임명된 73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중 영남 출신은 3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권한이 막중한 주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장은 영남 출신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현 정부 출범에 기여

그들만의 잔치, 판을 거두라

한 인사라는 점이다.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민간인을 우대하겠다는 정권 출범 초기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오직이 자기편 사람을 앉히려니 급기야 한나라당 낙선·낙선부대들이 줄줄이 공기업 감투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개각을 앞두고 비(非) 영남·비(非) 고려대에 재산이 적은 인물을 구하는 시늬이라도 했던 것과는 달리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는 이같은

자재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산재보상금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는가 하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비리가 판치는 공기업은 공공의 적이 다. 공기업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은 대처 총리시절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단행해 경제 및 사회를 일신시켰다.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그들만의 잔치는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물갈이 과정에서 문책인사로 공직에서 물러난 전직 차관과 비서관을 두 달도 안돼 특임 공관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대선 당시 현직 대학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해 바판을 받았던 인사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등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국민과의 소통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들은 말보다 정책으로 소통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심상돈



무더운 여름철 운동하기 날씨 참 덥다. 에어컨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끓는 땀이 흐른다. 이런 날씨에 운동한다는 것은 몸을 혹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은 필수다. 더운 날씨에 땀이 나는 것과 운동으로 체온도(core temperature)가 올라가서 땀이 흐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더운 날씨에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여름에 운동을 하면 체온이 다른 계절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체온이 점점 올라가 위험수위에 이르면 스

물째, 운동도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격하거나 길면 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운동량은 운동 후 땀이 나고 숨이 가쁠 정도. 하지만 여름철은 땀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므로 평소보다 운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량이 가장 적당하다. 습도가 높은 날은 운동량을 10~20% 더 줄이고, 1시간 이상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30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더운 날에 운동을 하더라도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과거에

무더운 여름철 운동하기

트레스와 일사병에 걸릴 수 있고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해 심각한 건강 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여름에 운동할 때는 대낮을 피해 온도가 낮은 아침 혹은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운동은 심폐 지구력 향상,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제격이다. 그러나 뇌졸중 위험과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안개 낀 도심에서의 심한 운동 역시 피해야 한다. 무기중독, 덥쌀운동, 탈리기가 좋다.

야간운동은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식후에 걷기와 맨손체조,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당뇨병·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그러나 야간운동은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면 1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짧은 시간에 하는 강도 높은 운동은 새벽에, 긴 시간 동안 강도가 다소 낮은 운동은 야간에 하는 것이 좋다.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상한제' 차등 적용을

가까운 친척이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다. 치료 도중에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암환자의 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로 1천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640만원이 건강보험 처리되고 3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게 본인부담금 상한제다.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6개월간 1천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 640만원

을 뺀 360만원 가운데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한 160만원은 정부가 대신 내주 결과 환자는 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비급여 항목 때문에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급여 항목이란 신의료기술 등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정착된다면 질병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환자 가정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화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자·광주시 남구 백운2동

기고

이심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 각국은자원 확보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다.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인 전기. 자원빈국인 우리 나라가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전기는 크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우리

다. 미래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도 앞으로 약 30년 이후에나 실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초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원자력발전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에너지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는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5 번째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영국·독일·스웨덴·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각국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현재 9기의 원전을

초고유가시대 대안에너지는 원자력

늘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 그리고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풍력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총 전력량은 4천329kWh로써 이중 화력발전이 63.2%, 원자력발전이 35.5%를 생산하고 나머지 1.3%는 수력발전 등 기타 부분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한정돼 있어 석유는 40여년, 천연가스는 60여년, 석탄은 약 160여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용과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까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기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경제성과 기술성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

가동 중인 중국의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난 해결을 위해 2030년 까지 약 3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앞두고 그 효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국산화해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 시공하고 있다. 운영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나라.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 에너지는 원자력발전이다.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또한 원자력발전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원자력발전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

〈한국에너지연구원(주) 공공원자력본부장〉

장난감 총기류 범죄 악용... 색깔·규격 규제 필요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총기류 장난감의 모양이 진짜와 똑같다. 그러다보니 강도 사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장난감 총기류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돼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다. 부모들도 별 생각없이 아이들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총과 칼 등 무기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인명경시 풍조가 형성될 수 있고, 장난감 총에 의해 실명 등 부상을 입기도 한다.

장난감 총기류에 대한 모형과 규격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16소총·권총 등의 경우 실제 모형은 허가해주더라도 색깔을 흰색 등 달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난감은 색깔과 모양이 똑같아 걸로는 실제 총인지 장난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장난감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아이들 장난감에 대해 흰색 또는 청색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는다.

▲안호빈·광주시 남구 원산동

시설

시·도·정치권 예산 확보에 총력 기울여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앞날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고 2차 심의를 벌이고 있다. 2차 심의에서 광주·전남 현안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광주·전남의 정치적 위상은 달라졌다. 정권교체로 10년동안 누리왔던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도 예전 같지 않다. 더구나 18대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두 달 이상 표류하면서 원조자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및 전남도와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도 간부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접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벌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철학이 반영되는 만큼 과거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이 따로 노는 '각개전투'식 노력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여수엑스포 등 수두룩하다. 하 나같이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정치력도 예전 같지 않다. 더구나 18대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두 달 이상 표류하면서 원조자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업 배정액 추경예산의 불과 3.6%라니

최근 고유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농어민들이 정부의 민생 안정대책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 무소속 김영록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 추가경정예산안 4조9천억원 가운데 농어업 관련 예산은 고작 3.6%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우리 농어업의 현실을 모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농어업 예산은 수입 양곡대 지원금 2천789억원을 비롯해 조류육감 사업비 500억원, 어선 감축비 2천35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거나 지속 추진할 사업이다. 실제 농어민을 위한 민생 대책비는 비료가격 안정 대책비 302억원이 유일하다. 농어민 민생대책을 겨우 시늬만 낸 셈이다.

우리 농어촌은 붕괴 직전이다. 올해 농어가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30~80%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 2중, 3중고를 겪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농기계를 반납하고, 어민들은 출어까지 포기하겠는가.

민생안정 대책은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 우선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 농어민을 소외시킨 것은 누구를 위한 민생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식량 자립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농어업은 반드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료가격 상승분의 보전,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농어업용 면세용 취급 수수료 폐지 등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유할 수 있는 욕망은 오히려 인간행위를 유발시키는 동력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얼마 전 한 작가에 의해 발견된 다산의 '경제유표' 핵심요약서인 '다산비결'도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일을 하고 먹는 밥은 성수

다. 일하지 않고 먹는 밥은 추하다. 이를 착취하는 벼슬아치는 도둑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다산의 실용을 새롭게 접목시켜야 할 시점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無等鼓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은 한마디로 '실용'이다. 모든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에서도 실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까지 국내외적으로 성공적 평가를 받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경제 대통령으로서 당선과 동시에 모든 서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듯 기대감에 부풀게 했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건만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나머지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최고기 '검역권'까지 포기하며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결과는 별무 소득이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계산속이 다르고, 한-미관계 또한 예전만 못하다. 일본과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가 독도문제로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모두가 실용을 위해 영

다산 정약용은 우리 정치사에 실용을

정책에 집착시켜 빛을 발하게 한 인물이다. 지난달 18일은 그의 탄생 246주년이었다. 그는 200여년 전 서양의 과학 물질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들여 실학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다산의 실용은 경제적 계산에 우선한 현 정부의 실용과는 궤를 달리한다. 다산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쟁취하는 욕망은 나쁘지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욕망은 오히려 인간행위를 유발시키는 동력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얼마 전 한 작가에 의해 발견된 다산의 '경제유표' 핵심요약서인 '다산비결'도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일을 하고 먹는 밥은 성수

다. 일하지 않고 먹는 밥은 추하다. 이를 착취하는 벼슬아치는 도둑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다산의 실용을 새롭게 접목시켜야 할 시점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